

투데이 칼럼

윤석금 웅진 회장을 만든 ‘말의 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오너경영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자신의 인생역정을 담은 저서 〈말의 힘〉을 최근 펴냈습니다. 무일푼의 세일즈맨으로 시작해 중견그룹을 일궈낸 원동력을 ‘말의 힘’으로 요약하고, 여러 일화를 소개한 책입니다.

브리태니커 한국지사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전 세계 54개 지사 영업사원 중 1등에 오르고, 일면 식도 없었던 외국 기업 회장에 가서 106억 원을 투자받아 창업을 이뤄내고, 역발상 마케팅으로 학습도서 ‘웅진아이큐’와 렌털 정수기 사업을 성공시키고, 부도 위기에 빠졌던 웅진식품을 단박에 업계 3위로 끌어올린 공로로 ‘말의 힘’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이 아닌 ‘말’의 힘일까.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용기와 의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 설득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곧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내 생각의 표고를 띄워주고, 상황을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학 영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일이 잘 안 풀릴 때 부덜거리 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뭔가를 바꿔보려는 사람, 안 되는 일을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려는 사람은 말을 바꿔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낸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벌어진 불행은 관심사가 아니다. 거기에서 대고 불경불만을 늘어놓는 건 바보짓이다. 앞으로 닥칠 일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관심사다.”

기업가로서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동건설 인수와 태양광 사업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그룹 전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등

의 힘으로 그를 수사한 검찰이 특이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윤 회장 개인 비리를 캐기 위해 수백 명의 웅진 임직원과 친인척을 소환조사했지만 한 건의 비리도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

그는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났고,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의 딸(2018년 11월1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고문, ‘윤석금 스타일’의 희망 메시지)을 벌리면 ‘윤 회장의 화려한 재기는 70년 한국 기업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가면 기업은 연명하더라도 기업가는 대개 감옥에 갔고 그리고는 끝이었다. 윤 회장의 재기는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전 회장은 그 비결로 투병경영과 함께 교육가반 경영을 강조

해 온 ‘윤석금 스타일’을 꼽았습니다. ‘윤 회장은 “우리 회사에는 노조가 없다. 그것은 순전히 교육 덕분”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직원들 눈을 뜨게 하면 그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고 한다. 그는 요즘도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CEO(최고경영자)들에게 “노조 대응에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교육을 시켜라. 노조가 아예 없거나 달라질 것이다”고 충고한다.’

‘투명’ ‘교육’과 함께 ‘또 또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에 바탕을 둔 ‘윤석금 스타일’ 경영은 웅진이 렌털 사업을 재개한 뒤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회사를 떠났던 옛 직원 수천 명이 몰달고 있던 직장을 버리고 웅진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반듯하다고 해서 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과 생각이 똑바르지 않으면서 좋은 인생이란 없다.” 윤 회장이 ‘말의 힘’에서 강조한 얘기입니다. “예외적인 인생을 바란다면 예외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중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내 말과 생각이다. 삶의 변화란 이걸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마약과 함께 아사드 사진 불태우는 시리아 반군



26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 대원이 한 건물에서 발견한 마약과 알코올을로를 소각하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사진이 있는 현수막을 함께 불태우고 있다.

하누카 첫 날, 개별 초 점화하는 사람들



2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의 링컨 로드몰에서 제27회 하누카 축제 가 열려 참가자들이 첫 번째 하누카 밤을 맞으며 개별 촛불을 켜고 있다. ‘하누카’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전통 명절 중 하나로, ‘등불 축제’ 또는 ‘빛 축제’라고도 하며 8 일 동안 열린다. 하누카 동안, 유대인들은 ‘메노라’라는 9개의 촛불을 밝히는 데 8개의 촛불은 8일 밤을 상징하고 9번째 ‘샤바시’ 촛불은 나머지 초의 점화에 사용된다.

사설

바이든 삼성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에 지급할 보조금이 47억500만 달러(약 6조 9천억원)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4월 양측이 예비 거래각서(PMT)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 달러(약 9조 2천억원)와 비교해 20%가 줄어든 액수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PMT 체결과 부처 차원의 실사를 완료한 결과, 이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세계 5대 최첨단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로써 인공지능(AI)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하는 동시에 수단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PMT 서명 당시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규모를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계획 대비 삼성전자의 시설투자 규모는 7.5%(30억 달러) 줄어들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액수는 그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셈이 됐다. 보조금 지급 액수가 줄어든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조금 대신 관세를 활용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인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미국에 들어오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제발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퇴행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싸울 기세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 등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이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현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전망이다. 수족들은 내란죄로 출몰이 쉬어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정작 그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여전히 망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제한적 리더십은 혼란과 불안일 일소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신속한 현재의 탄핵 결정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는 법리에 따른 신중한, 나아가 빠른 혼란 종식을 위한 판단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민주화가 이룬 여정을 돌아보며 퇴행적 궤도 이탈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탄핵 사유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죄과는 단죄를 한시도 미룰 수 없다.

무더기 증인 신청 등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쪽의 갖은 술책에도 현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은 느닷없고 독단적인 계엄령 선포로 선진 한국을 수십 년 후 퇴시키려 했다. 이는 민주주의 퇴행이다. 조속한 심판을 촉구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